

“ESS화재 막는다”... 안전성 재점검, 특수 소화시스템 적용

삼성 SDI 대책 발표

안전성 강화 대책 이달 중 마무리
종합대책 관련비용 전부 자사부담
“발화에도 화재 확산 근원적 차단”

삼성SDI가 대대적인 안전성 강화 조치로 ESS(에너지저장장치) 신뢰 회복에 나선다.

삼성SDI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ESS 화재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밝혔다.

ESS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진 외부 유입에 따른 고전압·고전류를 차단하고 이상 발생시 시스템 가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을 이달 내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타 예기치 않은 요인에 따른 화재 확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수 소화시스템’도 추가 적용키로 했다.

허은기 삼성SDI 시스템개발팀장은 이미 설치·운영중인 국내 전체 사이트의 안전성 종합 대책 관련 비용을 전부 자사가 부담키로 했다고 말했다. 삼성SDI가 지난 1년 동안 국내 전 사이트들



허은기 삼성SDI 시스템개발팀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ESS(에너지저장장치) 안전성 강화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대상으로 시행해 온 ▲외부의 전기적 충격으로부터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3단계 안전장치 설치 ▲배터리 운송이나 취급 과정에서 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 부착 ▲ESS 설치 및 시공 상태 감리 강화와 시공업체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배터리 상태(전압·전류·온도 등)의 이상 신호를 감지해 운전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안전성 종합 강화 대책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한다.



삼성SDI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ESS(에너지저장장치) 안전성 강화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허은기 팀장은 현재 실행 중인 안전성 강화 대책이 전력 전환장치, 시공 설치 및 운영 과정 등 ESS 시스템 내 배터리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도 배터리에서는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성 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기치 않은 요인에 의해 ESS 시스템 내 발화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화재로 확산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수 소화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이를 신규로 판매하는 시스템에 전면 도입하고 이미 설치·운영중인 국내 전 사이트에 대해서는 모두 삼성SDI가 비용을 부담해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수 소화시스템은 침단약품과 신개념 열확산 차단재로 구성되며 특정 셀이 발화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소화시키고 인근 셀로 확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시스템

은 미국 국제 인증 기관인 UL의 최근 강화된 테스트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SDI는 이를 생산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최단 기간 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영현 삼성SDI 사장은 “ESS 화재 원인에 관계 없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글로벌 리딩 업체로서의 책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위기에 직면한 국내 ESS 산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ESS 화재의 또 다른 당사자인 LG화학도 이날 안전장치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외부의 전기충격으로부터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듈퓨즈·서지 프로텍터·랙퓨즈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했으며 절연에 이상 발생시 전원을 차단시켜 화재를 예방하는 장치인 ‘IMD’를 함께 설치해 안전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화재 확산 방지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며, 기존 사이트는 이미 교체 지원됐고 신규 사이트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수지 수습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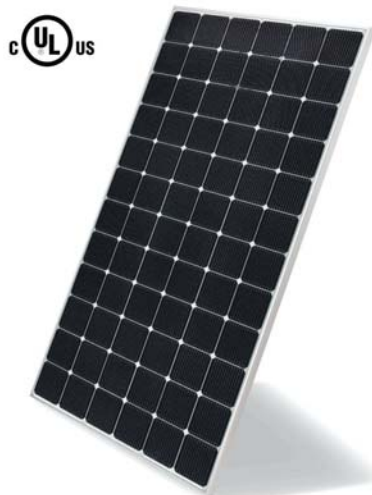
LG전자, ‘양면발전 태양광 모듈’ UL인증

국내 최대 출력·최고 효율

LG전자가 국내 최초로 양면발전(Bifacial) 태양광 모듈에 대해 UL 안전 규격 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양면발전 태양광 모듈 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14일 LG전자에 따르면 1995년 태양광 연구를 시작한 LG전자는 2010년 태양광 모듈을 양산, 출시하며 태양광 시장에 뛰어들었다. 2016년엔 양면발전 태양광 모듈 양산에 성공하며, 이 모듈 시장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7월 양면발전 태양광 모듈 전체 모델에 대해 ‘UL1703’ 인증을 받았다. ‘UL1703’은 평판식 태양광 모듈에 적용되는 안전 규격이다. 이 인증은 미국 공식 안전 인증기관인 ‘UL’이 태양광 모듈에 대해 엄격한 안전 심사를 거친 후 적합성이 인정될 경우



‘UL1703’ 인증을 받은 LG전자 ‘양면발전 태양광 모듈’ 제품 이미지(모델명: LG425N2T-V5).

부여된다.

LG전자는 ‘UL1703’ 인증 획득으로 태양광 모듈 설치 및 인허가를 받을 때 인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출 활동을 강력하게 펼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SK(주) C&C, 클루쿠스 지분 19% 인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혁신 생태계 확대 박차

멀티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확장
국내외 멀티 클라우드 고객 확보

SK(주) C&C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애저 국내 1위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기업(MSP)인 클루쿠스와 손잡고 국내외 멀티 클라우드 고객 확보에 적극 나선다.

SK(주) C&C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멀티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및 사업 확장을 위해 클루쿠스의 지분을 인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투자로 SK(주) C&C는 클루쿠스의 지분 18.84%를 확보하게 된다.

이번 지분 인수는 SK(주) C&C가 추진하는 클라우드 제트와 AWS·MS 애저·구글 클라우드 등을 연계한 멀티 클라우드 사업 확장의 일환이다.

SK(주) C&C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내외 전문 클라우드 사업자와 연계한 멀티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확장에 적극 나서는 한편, 다양한 클라우드 에코 파트너사와 함께 전 산업에 걸쳐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혁신 성공 사례 창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SK(주) C&C는 주요 계열사의 수요에 맞춰 AWS·MS 애저·IBM·구글 등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한 데 묶으며 사별로 최적화된 멀티 클라우드 시스템 및 운용 체제 구현을 추진할 계획이다. SK그룹은 2022년까지 SK 계열사의 주요 시스템 중 약 80%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SK(주) C&C는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

SK(주) C&C는 ▲멀티클라우드 서버

스 개발 ▲애플리케이션 별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 및 통합 ▲AI·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 신규 사업 발굴도 본격화한다.

IBM·MS 애저·AWS·구글 클라우드는 물론 고객이 자체 운용 중인 프라이빗 클라우드까지 하나로 묶으며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SK(주) C&C는 클루쿠스를 시작으로 국내외 여러 클라우드 전문 기업들에 대한 지분투자 등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실질적 사업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업별 대형 시스템을 중심으로 멀티 클라우드 시스템·서비스 개발 및 운용 성공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낼 계획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현대로템, 하천 건너는 전차 수출 추진

터키 업체와 기술협상 마쳐
최신에 고성능 제품 국산화

현대로템이 국내 첫 자주도하장비 수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올해 말로 예상되는 방위사업청의 자주도하장비 기술협력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터키 업체와 기술협상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자주도하장비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전투 지원차량으로 전차와 장갑차 등 기동부대가 하천을 건널 수 있게 하는 차량이다.

지상에서는 차량처럼 운행하며 수상

에서는 개별 차량이 기동부대를 싣고 배처럼 하천을 건널 수 있는 문교 방식과 여러 대의 차량을 연결해 교량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부교 방식으로 운용한다.

국내 첫 자주도하장비 도입 사업을 위해 현대로템은 영국 BAE시스템즈와 터키 FNSS가 공동 개발한 자주도하장비 ‘AAAB(Armored Amphibious Assault Bridge)’를 개량, 국산화에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현대로템은 이미 터키에서 입증된 최신에 고성능 제품을 국산화에 제품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전략이다. /양성운 기자

한화, ‘첨단·지능·무인’ 무기솔루션 전시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한화그룹 방산4사 통합 전시관 운영

한화그룹 계열 방산4사는 오는 15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하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19)’에서 통합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은 총 1320㎡ 규모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한화 4.0’을 슬로건으로 첨단화, 지능화, 무인화 솔

루션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또 대화력전 핵심 전력인 230mm급 다연장 로켓체계 ‘천무’와 M3 자주도하장비의 실물과 함께 공대지 유도탄 ‘천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등의 모형도 이번 전시회에서 볼 수 있다.

첨단화 솔루션으로는 레드백 장갑차와 레이저 폭발물 처리기, 개인전투체계, 차기 대공화기 등이 전시된다. 특히 레드백 장갑차와 레이저 무기체계는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실물이 공개된다.

지능화 솔루션 분야에서는 탄도탄자 전통제조(KTMO-CELL) 성능개량 사



한화 방산계열사 전시부스.

업, CR 무전기 실험 모델 등을 선보인다.

국방로봇,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드론탐지센서 등 전시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무인화 솔루션도 전시된다. /양성운 기자